

올해로 한국에서 생활한지 꼭 30년이다. 나의 불교인생을 돌이켜보면 잠생 어느 순간에 부처님 회상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것은 한국에 들어오지마자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던 인과때문이다.

당시로서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느라 종교생활은 염두에 둘 수 없었다. 그렇게 10여년을 지냈는데 79년부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겼다. 순전히 직관(直觀)으로 조계사에 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행동으로 옮겼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생활의 대부분을 직관에 따르고 있다. 그때 법당에서 10여 분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왔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했고 그 마음이 10여일을 유지했다. 그 인연으로

「협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명제인

절도 기웃거리고 불서도 읽지 않으니 자질을 갖추는데 정열을 쏟았다. 여러 스님들과 도반들에게 108배 합회절을 하라는 말을 듣고는 매일 아침 108배를 시작했던 것도 당시 일이다. 마음 속으로 수억 다생동안 내가 지었던 잘못, 특히 나도 모르게 부처불신한 지었던 업장이 녹아지기를 간절히 빌었다.



브라이언 배리

공부도 때가 있다지만 수행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80년대가 나에게 초발심으로 수행정

“새로 악업 짓지말자” 다짐

전에 가장 원력이 컸던 때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엇이 악해서 108배를 하지는 못한다. 대신 108 합회절을 염송하고 나와와 관계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있다. 사람은 반드시 살은 사람을 만나게 마련이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는 스승이라고 가르치셨다. 살아가면서 과거의 잘못을 누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악업을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 나름의 적극적인 참회 방법을 개발했다. 그것은 나와 구체적으로 인연 닿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눈같이 닦은 사람들에게 “간간하게 송만하게 사십시오”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눈이 마주친 사람 등에게 이런 염(念)을 했다. 놀랍게도 이렇게 생활하고 부처는 사람에 대한 싹된 분별심이 없어졌다. 고백하건대 부처님처럼 동체대비의 실천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며 살고 있다.

《(주)대우 근무·미국인》

구독료납부 은행지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대장경 전산화 불심 재결집하자

100일 동안 2만여명 동참...가족·사찰단위 참여 필요

3월 24일 시작된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팔만후원인 모집 캠페인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에 일반인의 호응이 잇따른 반면 불교계의 참여가 의외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30일 모집 캠페인 1백일을 맞은 (사)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1백일동안 참가한 인원이 2만1천여명, 모금액은 6억2천만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8만명의 후원인과 모금액 18억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라는 것.

한보시대 등 경제제 불황과 북한동포돕기운동에의 국민 관심집중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제시됐지만 무엇보다도 21세기 전자대장경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당초 1백일을 예상했던 캠페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행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장경 전산화는 오자(誤字)나 이체자(異體字)의 교

정작업이 43% 끝난 상태이며, 오는 9월 문장을 읽기 쉽게 해주는 표정작업을 위해 표정위원회를 구성, 여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폰트 코드 정리와 함께 한자 및

한글대장경 전산화를 병행한다. 전산화 작업에 정부는 올해 4억원을 책정, 지원하고 있으나 20~30억원이 드는 예산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소장 종림소장은 “21세기 팔만

대장경은 한 개인이 많은 돈을 내서 이루기 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을 모아 전자대장경이라는 첨단사회의 문화유산으로 탄생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성수대교 재개통... “부실참사 없길”

봉곡침사 2년8개월만에 복구된 성수대교가 3일 재개통됐다. 개통식에 참석한 일부 조계종 총무원장, 김수환 추기경, 조순 서울시장 등이 국화송이를 감물에 던지며 화성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앞서 6월 27일 이자리에서 한국불교청년회가 주최한 인정한행 기원과 화성자 천도를 위한 법회가 봉행됐다. <조선일보 사진제공>

종교편향 예방기구 ‘설치’

전불련등 10여개 단체 추진...고발창구도 마련

교계 10여개 신행단체들이 모여 불교탄압 종교편향사건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상설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중앙신도회 전불련 대불칭 대불련 전승준 중앙승가대학생회 우리는선우 교동종신원불자회 조계사청년회 등 신행단체 대표들은 특정종교 편향사건을 관장하는 불교대책위원회(가칭)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에 긴급 제안했다. 이것은 최근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

등 잇따르는 종교편향사건을 당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종단차원의 특별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강력히 요청한 것. 추진중인 특정종교편향 불교대책위는 군불교탄압사건은 물론 언론 학교 공공기관 시설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불교권익 침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 제도적인 장치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교대책위는 산하 각 단체

들이 실무를 분장해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종교편향 고발창구는 조계종중앙신도회에 설치하고 사례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바미안대불 폭파위기 넘겼다

탈레반군 공식발표...국제여론에 굴복

회교분리주의자 탈레반 반군의 폭파 위험이 시달리던 세계 최대 석불 바미안 대불이 한국 불교계와 유네스코 본부 등의 노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탈레반의 물라 모하메드 오말 최고령의 의장과 무라비 암울 총보통과 차관 등은 최근 ‘바미안 대불을 보존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먹거리와 바꾸는 北 문화재 19면

여름불교학교 테마 2면 17면

열린마당-軍 종교시책 2면

「한구좌 1천원」그릇진 곳에 신문법보시

우연히 접하게된 단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밖에 뿌려지면 반드시 짝이 터서 크나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구계를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 알려주면 그 복덕은 삼천大千 세계에 가득치도록 천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에는 더욱이나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비로 인간방생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死角)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에도 꾸준한 법보시운동을 벌여왔으나 그만큼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월 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성으로 만드는 신령지 현대불교신문을 소의당하고 있는 이웃에 보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군·경찰·교도소등에 보급 자동이체·온라인 통해

■ 대상처: 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각급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및 연변지역 등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 매일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1-0783-830(현대불교신문사)

제일은행 100-20-560799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1-226911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뱅크라인 50-01-124050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일 은행에 가는 부담이 덜어지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지정 법보시)

국민은행 023-25-0007-820(현대불교신문사)

■ 참여방법: 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은행에 가서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02)737-8881 (영업부)

(02)722-4162 (편집국)

현대불교신문사

‘종교간 대화위’ 결성

16일 6개종교 대표모임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결성된다. 성광스님(前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을 비롯한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천도교 등 주요종단 실무자들은 6월 30일

종단협의회실에서 모임을 갖고 16일 각 종교대표 모임을 열어 사업계획과 대화위원회의 정관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본사 사령

임연태 취재1부 차장 (1997년 7월 31일자)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부
산업에너지를 혁신 이루는 각종 중전기 및 송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차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사업부
민체의 오지도 허풍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인력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